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Pre-parent Education Program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강 사 김 지 신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정 승 원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최 미 경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Lecturer : Kim, Ji Shin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Lecturer : Chung, Seung Won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Doctoral course : Choi, Mi Ky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parents' motivations for parenthood, concept of marital role and demands for pre-parent education. The subjects were 179 women, who are planning to have a child and already are pregnant, and their husband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Among 7 motivations for parenthood presented, strong ties for couples and maturity demands were selected the most important. Economic and emotional dependency was valued the least.

2. The harmonious relationships between husband and wife was chosen as the

most important marital role concept.

3. For the contents of the pre-parent education program, the postnatal care, fathering, nutrition and exercise during pregnancy, and others were desired.

4. Over two-thirds of respondents preferred a joint participation (husband-wife together).

1. 서론

자녀의 임신과 더불어 가족은 Duvall의 가족생활 주기 2단계인 첫 자녀 출산기 및 양육기에 진입하게 되며, 첫 자녀의 탄생은 이제까지의 이원적 관계를 이루던 부부의 생활을 삼원적 관계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Meyerowitz & Feldman, 1966). 이 때 부부는 시간, 에너지 및 여러 자원들을 재배치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 또한 변화와 적응의 재확립을 필요로 한다.

부모역할로의 전이는 주로 부모의 성, 교육수준, 연령 및 어머니의 취업 등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져 왔다(원정선, 1990; 조복희·현은강, 1994; Hoffman & Manis, 1979; Goetting, 1986). 이러한 전이는 배우자와의 관계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변화를 이루면서 개인에게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사건일 수 있는 반면, 자녀양육과 새로운 대인관계에 따르는 경제적, 시간적, 물질적 부담 등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려운 압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현은강, 1994).

부모기로의 전이를 결혼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시킨 연구들에 의하면 첫 자녀의 출생과 더불어 결혼만족도는 변화되어진다(Dyer, 1963; Meyerowitz & Feldman, 1966; Waldron & Routh, 1981). 특히 Martin과 Colbert(1997)는 부부가 새로운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녀 출산 전후의 결혼적응, 자녀양육 준비도 및 부부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와 역할담당 만족도 등은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기로의 전이 동안 예견되는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대처과정(coping process)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

다(Martin & Colbert, 1997).

그러나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부모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준비과정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조복희·현은강, 1994). 또한 예비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며, 이들에게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역시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부모됨의 동기와 부부의 역할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예비부모들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영역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색적으로 고찰한다.

1. 예비부모들의 부모됨의 동기는 무엇인가?
2. 예비부모들은 임신 및 육아와 관련하여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가?
3. 예비부모들은 부부의 역할개념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4. 부모기로의 전이과정에서 예비부모들이 기대하고 걱정하는 점은 무엇인가?
5. 예비부모들은 부모의 역할 및 육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6.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각 영역별 요구 정도, 원하는 프로그램의 형태-시간, 요일, 기간, 실제적인 참여 여부 등)은 어떠한가?

II. 관련연구 고찰

1. 부모기(parenthood)로의 전이과정과 부모됨의 동기

LeMasters(1963)는 예비부모들이 갖고 있는 부모기에 대한 이미지가 허구적으로 미화되어 예비부모로 하여금 융통성이 있고 실제적인 관점을 지니게 하기보다는 완벽한 부모상으로서 부모기의 이미지를 형성케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LeMasters로 대표되는 전이에 관한 초기 연구들(Dyer, 1963; LeMasters, 1963)에서는 첫 자녀의 출산이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가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들(고선주·옥선화, 1993, 1994; 박숙자, 1992; 이숙현, 1990; Belsky & Rovine, 1990; Belsky, Spanier, & Rovine, 1983; Wallace & Gotlib, 1990)을 보면,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점차 첫 자녀 출생 후의 부부적응, 또는 결혼의 질적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은 부모됨이 위기가 아닌 전이과정이라는 데에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첫 임신에 대한 태도와 자녀관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Leifer(1977)는 첫 임신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본 연구에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들의 경우는 자아성장을 위하여 계획된 임신을 하였으며, 이들은 자녀를 돌보는 역할이 지속적인 자아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가 되는 것에 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여성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하였거나 도피, 지위의 획득 또는 심리적 안정의 수단으로 자녀를 원하였다.

한편 자녀를 두는 가치(value of children)와 관련하여 부모됨의 동기를 살펴 본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애정, 자아의 확장, 성인으로서의 지위 획득, 성취, 경제적 유용성 등의 가치를 갖게 되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켜보고, 애정과 동반자 의식을 느낌으로써 만족감을 갖게 된다(Hoffman & Manis, 1979; Chilman, 1980). 임신부의 자녀관을

연구한 박경애(1993)는 총 19개의 임신동기 항목들을 7점 척도로 측정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경제력, 자녀양육의 가치, 심리적 안정, 가계계승, 노후의 경제적 의존, 가사의 조력 등 6개의 요인을 밝혀냈다. 이러한 임신동기는 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심리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됨의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위요인, 자기연장요인, 창조·성취감요인, 전통성요인, 일차적 집단유대감요인 등 5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나 가계의 계승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안진·신양재, 1993).

이처럼 자녀를 낳아 기르기로 결정하는 동기는 개인의 연령 또는 교육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과거에 비해 부모가 되는 동기에 있어서 가계계승이나 노후의 경제적 의존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측면은 약화되어진 반면, 부부간의 유대감이나 자아성장 등의 요인은 보다 강조되고 있다.

2. 부부의 역할개념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은 가족원간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때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부부간의 역할은 가족생활의 핵심으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혼의 안정성과 만족도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부의 역할은 자녀를 공동으로 돌보고 키워야 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부부의 역할에 있어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대외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가사일과 육아 등을 맡게 되는 전통적인 역할구분은 사회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 부부의 역할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된 바람직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관한 연구(권희완, 1992)에 의하면 바람직한 남편상으로는 성실성, 가정을 중시하는 측면과 생계담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제시되었으며, 바람직한 아내에 대해서는 가정관리, 자녀양육 및 부부간의 대

화를 포함하는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인지는 전형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 구분은 남아 있으면서 부부 쌍방의 보다 인격적인 측면이 증시됨을 의미한다.

또한 부부간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수행이 일치하고 역할분담이 협의하에 이루어졌을 때 부부역할은 보다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옥선화·정민자, 1992). 특히 부모기로의 전이가 이루어지는 동안 자녀양육에 따른 새로운 과제들은 부부역할의 재구성과 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며, 이는 자녀출산 이후의 부부간의 원만한 역할 수행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3.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태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예를 들어, 예비부부들을 위한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과 부모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예를 들어, 영·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 필요성과 의의 면에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프로그램을 개설한 기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방식이 달라진다. 관련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린이육영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은 직장여성을 대상집단으로 하며, 2박 3일간의 연수원 합숙과정을 통하여 임신 및 출산과정, 식생활준비 및 부모가 되는 과정 등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어린이육영회연수원, 1996). 또한 종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혼부부교실 및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유제품회사에서 운영하는 임신부교실이 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실시하는 예비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라마즈 예비부모교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으로는 전통적인 라마즈 분만법과 더불어 임신 및 분만에 관한 일반적 산과교육, 분만의 신체적 준비, 부모역할준비등이 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엄밀히 구분하자면 예비부모교육(pre-parent programs)과 신부모교육(new-parent programs)으로 나뉘어진다. 예비부모교육은 가족 생활 교육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초등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교과과정의 일부분으로 부모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LeVant, 1990). 가장 잘 알려진 프로그램으로는 메사추세츠 주의 교육개발센터에서 개발된 아동기 교육과정의 탐색(Exploring Childhood curriculum)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양육에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과 아동발달 이론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실시 후의 평가로서 지식의 증가나 실제적인 양육기술 면에서 향상을 가져왔다고 보고되었다. 더우기 양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은 나중의 부모역할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LeVant, 1990).

이에 반해 신부모교육은 산전검사(prenatal clinics)나 산과병원(maternity hospitals), 적십자(the Red Cross), 출산교육협회(the Childbirth Education Association)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교육 강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서는 임신부의 영양 및 신체적 변화와 분만과정, 신생아 돌보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LeVant, 1990). 출산준비 강좌(prepared childbirth classes) 중에서도 특히 라마즈 강좌는 부모기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두려움을 경감시키도록 도와줌으로써 곧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의 심리적 육구를 충족시키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자 원하거나 첫 자녀를 임신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직장과 산부인과 병원을 통하여 연구대상을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편이 30세, 부인이 27.7세이며 교육정도는 남편의 90%와 부인의 70%정

도가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수준이다. 남편의 74.9%, 부인의 51.4%가 회사원, 은행원 등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인의 35.2%가 전업주부에 해당된다. 소득의 경우에는 250만원 이상이 전체의 43%, 150-250만원이 35.7%이다. 평균 결혼기간은 16.6개월이며 이 중 임신한 경우가 38.7%, 임신 하지 않은 경우가 58.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대상자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교육정도, 직업, 소득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취업주부가 전체의 65%에 해당하였고 대부분 사무직에 종사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를 임신하고자 원하거나 임신 중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모기로의 전환 시점에서 부모됨의 동기와 부부의 역할개념, 및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관련되는 선행연구들(권희완, 1992; 김순이, 1990; 송만영, 1985; 박경애, 1993; 박숙자, 1992)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예비조사를 거친 후 본조사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하위요인으로는 첫째, 부모기에 대한 동기, 둘째, 임신과 관련된 정보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정도, 셋째, 부부의 역할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총 179쌍)

변 인	구 분	빈 도(%)		변 인	구 분	빈 도(%)	
		남 편	부 인				
연 령	25세이하	4 (2.2)	32(17.9)	가 족 형 태	부부가족	141(78.8)	
	26-30세	104(58.1)	125(69.8)		확대가족	34(19.0)	
	31-35세	65(36.3)	20(11.2)		무응답	4(2.2)	
	36세이상	5 (2.8)	0(0)	결 혼 기 간	1-6개월	43(24.0)	
	무응답	1 (0.6)	2(1.1)		7-12개월	53(29.6)	
	평 균(세)	29.97	27.69		13-18개월	29(16.2)	
교 육 정 도	고졸이하	10 (5.6)	23(12.8)		19-24개월	12(6.7)	
	전문대졸업	7 (3.9)	30(16.8)		24개월이상	38(21.2)	
	대학졸업	120(67.0)	102(57.0)	무응답	4(2.2)		
	대학원이상	41(22.9)	24(13.4)	평 균(개월)	16.57		
	무응답	1 (0.6)	0(0)	임 신 여 부	임 신 (개 월)	1-3	13(7.3)
직 업	무직, 단순기능노동자	7 (3.9)	6(3.4)			4-7	27(15.1)
	서비스직, 자영업	14 (7.8)	7(3.9)			8-10	29(16.2)
	회사원, 은행원	134(74.9)	92(51.4)		비임신	104(58.1)	
	전문직, 관리직	22(12.3)	10(5.6)		무응답	6(3.4)	
	주부	N/A	63(35.2)	소 득	150만원이하	37(20.7)	
근 무 시 간	평 일	12.04	8.09		150-250만원	64(35.7)	
	토 요 일	6.92	3.72		250만원이상	77(43.0)	
					무응답	1(0.6)	

에 대한 개념, 넷째, 부모역할에 대해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 다섯째, 부모의 역할과 육아에 관한 기초지식, 여섯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견해들이 포함된다. 또한 각각의 문항들은 개방형 설문, 객관식 선택, 다중선택, 진위선택(예/아니오), 리커트척도 5점 척도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1997년 1월~2월 중에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첫째, 남편과 부인의 직장을 통하여 임신을 계획하거나 현재 임신 중인 대상자를 구하여 배우자의 설문지를 함께 배부한 후 3, 4일 후에 회수하였다. 둘째,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각각 2곳씩(총 8개 병원)을 선정하여 임신 확인 또는 산전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첫 자

녀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배우자와 함께 온 경우에는 즉석에서 설문지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여 회수하였으며, 부인만 온 경우에는 배우자의 응답을 포함하여 설문지를 완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쌍을 배부하였으나 전체 207부가 회수되어 낮은 회수율(69%)을 보였다. 특히 우편을 통한 방법일 경우 대상자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부적절한 응답을 한 경우와 부부의 쌍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시켜 179쌍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에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한 빈도,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증 등의 통계처리방법이 적용되었다.

〈표 2〉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빈도분석 및 부부간의 차이검증¹⁾

문항	내 용	대상 집단	점 수		t
			평 균	표준편차	
1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남편	.23	.42	1.91
		부인	.16	.37	
2	자녀를 키움으로써 얻어지는 정서적 보상을 받기 위해	남편	.16	.37	.47
		부인	.15	.35	
3	노후에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남편	.03	.17	1.64
		부인	.01	.07	
4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부부의 의무라는 의미에서	남편	.25	.44	.56
		부인	.23	.42	
5	부모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성숙한 성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남편	.48	.50	-1.42
		부인	.55	.50	
6	자녀가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으므로	남편	.19	.39	-1.11
		부인	.23	.42	
7	자녀가 있음으로 부부간에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므로	남편	.53	.50	-.63
		부인	.56	.50	

1) 전체 7개의 문항 중 2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각각의 문항은 0 또는 1점의 점수로 부호화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인식

부모됨의 동기로서 7개의 문항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의 견해를 알아본 결과, '자녀가 있음으로 부부간에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므로'와 '부모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자신이 성숙한 성인이 되므로'의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노후에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기 위해'였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인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모든 문항에서 남편과 부인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부모됨의 동기에 대해 부부는 거의 일치되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부모됨의 동기라 할 수 있는 노후의존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연구대상 집단이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음에 기인하며 이는 선행연구(박경애, 1993; 유안진·신양재, 1993)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2. 임신 및 육아와 관련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임신과 육아에 관련된 정보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지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을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임신,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도움원으로 제시된 9개의 항목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의 평균점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편의 경우에는 '가족원', '관련 서적' 및 '대중매체'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부인의 경우에는 '관련 서적', '가족원', '친구, 직장동료, 이웃'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부부가 지각의 점수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본 결과, '친구, 직장동료, 이웃(t=3.64, P<.001)', '대학에서 배운 관련과목(t=2.67, P<.01)', '중·고등학교의 가정관련과목(t=2.58, P<.05)', '임신에 관련된 서적(t=2.52, P<.01)'의 문항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도움원으로서 학교교육을 포함한 형식적인 도움원과 가족 또는 이웃을 포함하는 비형식적인 도

<표 3> 임신 및 육아와 관한 도움원의 종류 및 지각정도²⁾

문항	내 용	남 편			부 인		
		N	평 균	표준편차	N	평 균	표준편차
1	가족원(부모, 조부모 등)	142	3.18	.95	143	3.05	.95
2	친구, 직장동료, 이웃	152	2.55	.91	142	2.89	.81
3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150	2.56	.95	143	2.73	.82
4	중, 고등학교에서의 가정, 가사, 기술과목	122	1.18	1.15	131	1.66	.98
5	대학에서 배운 관련과목	112	1.81	1.28	116	2.30	1.14
6	산부인과, 보건소의 담당의사	104	2.53	1.17	120	2.48	1.12
7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서적	132	2.98	.92	134	3.28	.77
8	병원, 유제품회사에서 배부하는 소책자	107	2.40	1.07	104	2.45	1.14
9	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등)	80	2.24	1.23	69	2.32	1.24

2) 도움을 받는 정도의 보기에서 전혀 접하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점수화 과정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각 문항의 응답자수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움을 비교했을 때 도움을 받고 있다는 지각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일부의 항목에서 부인이 남편보다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3. 부부의 역할에 대한 개념

남편과 부인 각각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로서 '생활비 벌기', '집안 살림하기', '친척들간의 화목', '여가활동', '재산증식', '부부간의 화목', '원만한 성생활', '자녀양육 및 교육', '자신의 성취를 위한 일'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2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였다.³⁾ 그 결과,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는 '부부간의 화목(.54)'과 '생활비 벌기(.39)', 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는 '부부간의 화목(.52)'과 '집안 살림하기(.18)'가 제시되었고, 남편의 입장에서 본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는 '생활비 벌기(.53)'와 '부부간의 화목(.34)'이,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서는 '부부간의 화목(.42)'과 '집안 살림하기(.23)'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역할개념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이 거의 일치되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편의 도구적 역할과 아내의 표현적 역할을 중시한 전통적 개념과 더불어 부부의 공통적인 역할로서 '부부간의 화목'을 더욱 중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과거 전통사회에 비해 부부의 역할이 인생의 동반자, 역할의 공유 등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 여겨진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실제적으로 자녀출산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재구성을 수반하는 역할변화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이므로 보다 부부 중심의 결과를 보였을 것이라 예측된다.

4. 부모역할에 대해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

한편 부모기에 대한 기대와 걱정에 관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편의 경우 기대되는 점으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의미(29.1%)', '자녀를 키우는 보람(23.3%)', '행복한 가정에의 기대(13.4%)', '탄생 자체의 의미(12.8%)', '대를 이음(2.2%)'의 순으로, 걱정되는 점으로는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모역할의 어려움(45.8%)', '경제적 부담(13.4%)', '교육문제(7.3%)', '자녀의 건강문제(6.7%)'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부인의 경우 기대되는 점으로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의미(34.6%)', '자녀를 키우는 보람(22.4%)', '탄생 자체의 의미(16.2%)', '행복한 가정에의 기대(12.0%)'의 순으로, 걱정되는 점으로는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모역할의 어려움(47.5%)', '아이를 맡기는 문제(15.6%)', '교육문제(8.4%)', '자녀의 건강문제(6.7%)', '경제적 부담(5.0%)'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특징적인 차이를 나타낸 문항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대되는 점으로서 남편은 소수이긴 하지만 '대를 이음'에 의미를 둔 반면, 부인의 경우에는 단 한 사람도 그러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걱정되는 점으로서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부인에 비해 남편들이 더 큰 부담감을 표현했으며 특히 부인이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경우(20.5%), 부인이 직업을 가진 경우(8.5%)보다 더 높은 비율로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반면에 남편에 비해 부인이 더 큰 어려움을 지각한 항목으로는 '아이를 맡기는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직업을 가진 상당수의 부인들(26.4%)의 경우에 해당되었고 '아이로 인한 희생' 항목에서도 남편(1.1%)보다 부인(5.0%)이 더 높은 비율로서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부부는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인의 취업

3) 각각의 보기에 대해 선택이 되면 1점을, 선택이 되지 않으면 0점을 부과하였으므로 0~1점 범위 내에서 해당값을 나타낸다.

여부에 따라, 부인이 직업이 없을 경우 남편 혼자 경제력을 담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과 부인이 직장에 나갈 경우 아이를 맡기는 어려움이 부모로서 걱정되는 대표적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5. 부모의 역할 및 육아에 관한 지식정도

예비부모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에 앞서,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이 부모의 역할 및 육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초지식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남편과 부인에게 20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문항을 예/아니오에 따라 0점 또는 1점으로 처리하고 정답여부에 따라 역부호화하였으

며 총 20개의 문항중 지식정도가 낮은 10개의 문항들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연구 결과,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남편과 부인은 모두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전체 20문항 중(점수분포 .41~.99)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대를 나타낸 것으로, 남편의 경우에는 ‘소아마비, DPT는 1번만 접종하면 된다’, ‘모유를 먹이는 기간 동안은 자연 피임된다’, ‘초유는 진득진득하고 냄새가 나므로 안 먹이는 것이 좋다’, 부인의 경우에는 ‘모유를 먹이는 기간 동안은 자연 피임된다’, ‘소아마비, DPT는 1번만 접종하면 된다’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한편 지식정도의 총점을 남편과 부인, 임신과 비

<표 4> 부모의 역할 및 육아관련 지식정도에 대한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문항	내용	남편 N=179	아내 N=179	남편		아내	
				아내 임신 N=65	아내 비임신 N=96	임신 N=66	비임신 N=99
1	소아마비, DPT는 1번만 접종하면 된다.	.41 (.15)	.53 (.50)	.41 (.49)	.41 (.49)	.51 (.50)	.52 (.50)
2	모유는 분유보다 소화가 잘된다.	.89 (.31)	.91 (.29)	.96 (.21)	.85 (.36)	.90 (.31)	.91 (.28)
3	어린이 충치는 영구치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76 (.43)	.83 (.38)	.81 (.39)	.72 (.45)	.83 (.38)	.83 (.38)
4	부모와 자녀의 접촉은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71 (.46)	.73 (.45)	.74 (.44)	.68 (.47)	.72 (.45)	.74 (.44)
5	유아의 지적발달은 아버지의 참여와 깊은 상관이 있다.	.89 (.32)	.92 (.28)	.96 (.21)	.85 (.36)	.93 (.26)	.90 (.30)
6	아기의 배설물로는 아기의 건강상태를 알 수 없다.	.88 (.32)	.91 (.29)	.91 (.28)	.87 (.34)	.94 (.24)	.88 (.32)
7	모유를 먹이는 기간 동안은 자연피임이 된다.	.63 (.48)	.41 (.29)	.63 (.49)	.64 (.48)	.37 (.49)	.43 (.50)
8	초유는 진득진득하고 냄새가 나므로 안 먹이는 것이 좋다.	.69 (.46)	.85 (.36)	.78 (.42)	.62 (.49)	.88 (.32)	.82 (.38)
9	신생아는 배고플 때, 졸릴 때, 아플 때 우는 울음이 다르다.	.78 (.41)	.84 (.37)	.77 (.43)	.81 (.40)	.81 (.39)	.86 (.35)
10	아기가 열이 날 경우에는 예방접종시기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88 (.33)	.93 (.26)	.84 (.37)	.91 (.28)	.93 (.26)	.92 (.27)

임신의 기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았다. 남편의 총점(16.93)은 부인의 총점(17.45)에 비해 유의한 차이($t=-2.95, P<.01$)를 나타내어 부인의 지식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부인의 경우 임신한 경우의 총점(17.47)은 비임신 경우의 총점(16.67)에 비해 유의한 차이($t=2.06, P<.05$)를 나타냈다.

6.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제에 관한 의견

1)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항목

본 연구에서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가정되는 20개 항목을 선정하여 '전혀 필요치 않다'로부터 '매우 필요하다'까지의 5점척

도에 대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몇몇 경우에 대해서만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되었다.

요구도가 높은 문항들을 살펴보면 부인의 경우에는 '출산후의 산후조리', '임신중의 영양 및 운동',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질병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임신중의 바람직한 태교'의 순서로, 남편의 경우에는 '출산후의 산후조리', '질병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 '임신중의 영양 및 운동', '산전 정기검진 및 건강관리'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점수가 낮은 항목으로는 부인의 경우에는 '라마즈 호흡법',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 남편의 경우에는 '라마즈 호흡법', '탁아시설에

〈표 5〉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서 교육이 요구되는 정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	내 용	남 편		부 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부모가 되는 변화과정에 대한 적응	4.05	.85	4.21	.82
2	양육에 있어서의 부, 모의 조화로운 역할	4.40	.75	4.54	.68
3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4.39	.86	4.61	.64
4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중심으로 이해하는 부모의 태도	4.35	.81	4.53	.66
5	임신중의 바람직한 태도	4.24	.81	4.57	.62
6	임신중의 영양 및 운동	4.46	.76	4.63	.60
7	산전 정기검진 및 건강관리	4.44	.83	4.46	.74
8	라마즈 호흡법(라마즈 체조)	3.58	.99	3.86	.85
9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	3.94	.80	4.09	.76
10	임신 중에 나타나는 정상/비정상적인 증후들에 대한 지식	4.39	.81	4.51	.67
11	분만과정에 대한 지식	4.21	.84	4.49	.71
12	출산에 대비한 준비	4.38	.81	4.53	.72
13	출산후의 산후조리	4.53	.69	4.71	.57
14	수유 및 이유에 대한 지식	4.24	.78	4.55	.70
15	배변훈련 및 청결관리에 대한 지식	4.13	.81	4.39	.76
16	예방접종에 관한 지식	4.47	.79	4.56	.70
17	질병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4.48	.79	4.59	.63
18	영아기의 전반적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4.37	.73	4.49	.74
19	탁아시설에 대한 정보와 선택기준	3.67	.90	4.11	.89
20	취업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기술들	3.82	.99	4.25	.95

대한 정보와 선택기준', '취업모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기술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은 거의 일치되는 경향으로서 출산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전문적인 지식(예를 들어, 라마즈 호흡법)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우선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 본 결과, 남편의 경우에는 전체의 80.4%가, 부인의 경우에는 89.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와 한 쪽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부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남편의 68.7%, 부인의 75.4%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어머니의 53.6%,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아버지의 31.3%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참여 의사에 대하여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참여여부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남편들이 참여의 뜻은 있으나 실제로 이를 위한 시간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편에 비해 시간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은 편인 부인들이 부부 프로그램을 원하고 남편 역시 부부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은 결혼초기 부부의 공동참여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부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약 70%의 응답자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식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3) 원하는 요일 및 시간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위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주말을 원한다고 예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면 부인의 경우 토요일(36.9%), 금요일(8.4%), 일요일(7.8%)의 순서로, 남편의 경우에는 토요일(27.9%), 일요일(12.3%), 금요일(5.1%)로 나타났다. 또한 원하는 시간대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 등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회 교육시간은 주로 1-2시간(남편, 77%, 부인 83%)을 원했으며 전체 교육기간은 4주(남편, 46.9%, 부인, 40.2%), 2주(15.1%, 20.7%), 6주(10.6%, 7.8%)로서 주로 단기간 과정을 선호하며 시간상 여유가 없는 남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부모들이 부모기로의 전이 과정을 보다 순조롭게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모됨의 동기, 부부의 역할개념, 부모기를 맞이함에 있어서의 기대와 걱정되는 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제시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정도, 참여여부, 선호하는 요일 및 시간대 등을 살펴보았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됨의 동기에 있어서, 부부간의 유대감 강화, 부모 역할 수행을 통한 성숙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기로 인식되었다. 이에 비해 가계 계승, 또는 노후의 물질적·정신적 의존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동기는 낮게 나타났다.

둘째, 부부의 역할개념에 있어서 남편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생활비 벌기, 부부간의 화목을, 부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부부간의 화목, 집안 살림하기를 선택하였다. 한편 아내의 경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부부간의 화목, 집안 살림하기,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는 부부간의 화목, 생활비 벌기를 선택하였다.

셋째, 부모기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개방형 질문으로 알아본 결과, 남편의 경우 부인에 비해 자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걱정되는 점으로 보아 많이 표현하였고, 특히 부인이 취업을 한 경우보다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남편은 경제적 부담을 보

다 빈번히 지적하였다. 한편 부인은 남편에 비해 아이를 맡기는 문제와 아이로 인한 희생의 항목에서 더 많은 부담을 나타내었다.

넷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필요 정도가 높게 인식된 문항들로는 출산 후의 산후조리, 임신 중의 영양 및 운동, 질병 및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부부 모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고, 실제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사를 물었을 때 부부 대상으로 한 경우를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각기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화 문제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남편과 부인의 교육, 소득, 그리고 부인의 취업 여부에 있어서 매우 동질적인 성향을 띠는 집단이므로 다른 사회계층의 예비부모들에게도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주의를 요한다.

둘째, 부모됨의 동기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 여러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됨(김명희, 1996)을 감안할 때, 해당되는 동기 문항의 선택보다는 리커트 척도에 따른 응답방식이 각 동기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는데 보다 유용하리라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하여 자녀를 갖고자 원하거나 현재 임신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은 임신 여부 또는 임신 개월수 등에 따라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정서적인 준비 정도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수준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막연히 임신을 기대하는 부부와 출산이 임박한 부부의 관심 영역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구분을 보다 세분화시킨다면 결과에 대한 해석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부모기로의 전이가 개인 및 가족생활주기의 정상적인 발달단계과정의 하나라고 볼 때, 첫 자녀의 출생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취감 및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주는 것임은 틀림없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는 예측되는 부부간의 역할변이나 새로운 역할의 가중, 자녀양육으로 인한 가사노동의 부담가중 및 자녀 돌보기의 어려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예비부모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활발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의의를 둔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부모역할의 부정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보다 구체적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이 개발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선주·옥선화,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I. 대한가정학회지, 31권 2호, 1993, 127-141.
- 2) 고선주·옥선화,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III. 대한가정학회지, 32권 5호, 1994, 83-96.
- 3) 권희완, 부부관계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1992.
- 4) 김명희, 현대사회와 부모교육. 학문출판, 1996.
- 5) 김순이,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위한 준비도에 따른 육아지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6) 박경애, 임신부의 자녀관: 성선호와 임신동기.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993, 25-33.
- 7) 박숙자, 첫 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 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1992.
- 8) 송만영, 어머니의 육아지식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9) 옥선화·정민자, 결혼과 가족. 하우, 1992.
- 10) 원정선, 부모됨의 전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0.
- 11) 유안진·신양재,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 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권, 1993, 141-155.
- 12) 이숙현,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

- 화. 가족학논집, 2권, 1990, 1-27.
- 13) 조복희·현온강, 한국 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
한가정학회지, 32권, 1994, 97-108.
- 14) 현온강,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
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4.
- 15) 한국어린이육영학회연수원, 직장여성을 위한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 1996.
- 16) Belsky, J. & Rovine, M.,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0, 5-19.
- 17) Belsky, J., Spanier, G. B., & Rovine, M.,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983, 567-577.
- 18) Chilman, C. S., Parent satisfactions, concerns, and
goals for their children. *Family Relations*, 29,
1980, 339-345.
- 19) Dyer, E. D., Parenthood as crisis: a re-stud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5, 1963, 196-201.
- 20) Goetting, A., Parental satisfaction - A review of
research. *Journal of Family Issues*, 7(1), 1986,
83-109.
- 21) Hoffman, L. W. & Manis, J. D.,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of the
Family*, 41, 1979, 583-596.
- 22) Leifer, M., Psychological changes accompanying
pregnancy and motherhood,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95, 1977, 68-71.
- 23) LeMasters, E. E. , Parenthood as Crisis. in Marvin
B. Sussman (Ed.), *Sourcebook in Marriage and
the Family*,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1963.
- 24) LeVant, R. F., Education for fatherhood. In P.
Bronstein & C. P. Cowan(Eds.), *Fatherhood
today: Men's changing role in the famil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0.
- 25) Martin, C. A. & Colbert, K. K., *Parenting - A
life span perspective*. New York: The McGraw-
Hill Companies, Inc, 1997.
- 26) Meyerowitz, J. H. & Feldman, H., Transition to
parenthood, *Psychiatric Research Reports*, 20,
1966, 78-84.
- 27) Waldron, H. & Routh, D. K., The effect of the
first child on the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 1981, 785-788.
- 28) Wallace, P. M. & Gotlib, I. H., Marita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stability and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0, 21-29.